

# 광주시청 고승환, 광주체육 빛낸 '별종의 별'



19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4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입상단체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시체육회, 2024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 성료

### 수피아여중 농구팀·광산구체육회 '올해의 상' 영예 한영일 '올해의 감독'·이선영 '올해의 지도자' 수상

광주시체육회가 올 한해 광주체육을 빛낸 유공자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9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상갑 광주시 부시장, 종목단체장을 비롯한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정영근 광주스마협회 회장의 체육인재장학금 5천만원 기탁,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의 체육진흥기금 3천만원 후원금 전달식으로 시작했다.

이러진 시상식에서 광주시장상은 박선배 광주국도연맹 회장,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 이정하 광주근대5종연맹 부회장, 김태연 광주시체육회

장을 지낸 김광수 광주시배구협회 지문위원은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올해 광주체육을 빛낸 '올해의 상'에는 광주수피아여중 농구팀과 광산구체육회가, '올해의 클럽'에는 광주다음스프츠클럽이 선정됐다.

'올해의 감독'은 한영일 조선대 축구감독이, '올해의 지도자'는 농구 이선영(광주수피아여중), 최강(광주서구체육회) 지도자가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의 선수'에는 육상 고승환(광주시청)과 스쿼시 성민이(동호인) 각각 수상했다.

전국체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입상종목단체, 감독·코치, 선수에게 포상품(금)을 수여했다.

공도가 종합 1위, 스쿼시와 에어로빅합합전 부문에서, 김지환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오영길 OK저축은행 아웃백비빔 감독, 김창현 광주탁구협회 사무국장, 윤일현 문흥중앙초 등 13명이 수상했다.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평생 이바지한 원로체육인으로 이재방 광주시검도회 지문위원과 한국중고배구연맹회



2024 광주체육 유공자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광주시청 육상팀 고승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전문성·효율성강화'

## 장성군 장애인체육회 정식 승인 내년 미설립 4개 시군 설립 박차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9월 설립된 장성군장애인체육회를 정식 승인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8번째 시·군지회인 장성군장애인체육회의 설립으로 장성군 장애인체육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025년 미설립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립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8일 전남체육회3층 대회의실에서 제7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제규정 개정(안)을 주요 심의·의결했다.

(사진) 주요 안건으로는 ▲법제상별위원회 일부 개정(안) ▲가맹단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관리단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선수위원회 및 전문체육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운영규정 개정(안)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전부 개정(안) ▲가맹단체 가맹·탈퇴 규정 개정(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원안가결됐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이사회는 제규정 개정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체육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19일 열린 리그1 16라운드 파리 생제르맹과 AS모나코의 경기. 골을 터뜨린 하무스(가운데)가 이강인과 팀메이트의 축하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교체 투입 이강인, 역전 결승포 도움

PSG, AS모나코에 4-2 승

오른쪽 측면을 누비던 이강인은 곧 살루 하무스와 역전 결승포를 합작해 팀 승리에 기여했다.

후반 38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이강인이 문전으로 날카롭게 공을 올렸고, 문전에서 뛰어 오른 하무스의 머리에 정확히 배송됐다.

하무스의 헤더가 골대를 가르면서 프로축구 리그1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PSG가 리드를 가져왔고, 이강인은 리그 2호 도움을 올렸다.

이강인의 올 시즌 공격포인트는 6골 2도움이었다.

이전 AS모나코의 미나미노 다쿠미가 후반 20분 그라운드를 밟으며 이강인은 2-2로 팽팽히 맞선 후반 20분 브래들리 바르콜라 대신 투입됐다.

/연합뉴스

## 박정환, 양카이윈과 춘란배 우승 격돌

2019년 이어 두번째 우승 도전

이후 반집을 다루는 팽팽한 형세를 이어가다 막판 패싸움 과정에서 우세를 잡아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박정환은 2019년 제12회 춘란배 우승 이후 두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함께 열린 다른 4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변상일 9단이 중국의 양카이윈 9단에게 19수 만에 불계패해 탈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개최 예정인 결승전은 박정환과 양카이윈의 대결이 성사로 막지 못해 추격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 'V13' 강력 의지...KIA, 키움 조상우 품었다

## '현금 10억원+1·4라운드 지명권' 주고 트레이드

### "장현식 빈자리는 없다" 필승조 활약 기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대어급 불펜 투수 조상우를 영입했다. 이번 트레이드는 FA로 LG트윈스에 빠진 장현식의 공백을 막으며 메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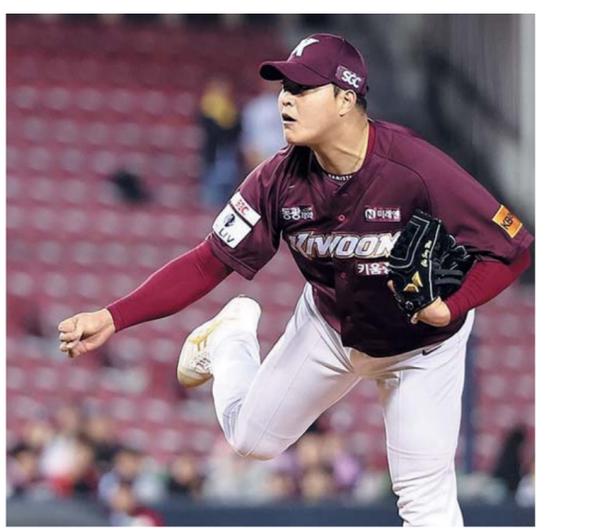
팀 마운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년 시즌 V13을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겠다는 구단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

KIA 타이거즈는 19일 키움 히어로즈와 현금 10억원, 2026년 신인 1·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투수 조상우(30)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이번 트레이드는 KIA와 키움, 양 구단의 필요에 의해 성사됐다.

KIA는 불펜 강화 차원에, 키움은 팀 리빌딩 장기적 목표에 맞춰졌다.

우투우타인 조상우는 대전고를 졸업하고 지난 2013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히어로즈에 입단한 뒤 사회복무요원(2022-2023년)으로 군 대체복무를 마치고 올 시즌 북



KIA 타이거즈가 19일 키움 히어로즈의 조상우를 영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승에 크게 공헌했다.

올해 전상현과 장현식, 광도규, 이준영, 정해영으로 짜여진 불펜 마운드는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장현식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내년 시즌 V13을 달성하기 위한 KIA의 중요한 과제다. 그의 공백으로 불펜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조상우 영입으로 이러한 걱정을 상당 부분 떨게 됐다.

특히 조상우는 2025시즌을 무사히 소화하면 FA 자격을 얻는다. 계약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욱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A 관계자는 "현장과 불펜 보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이번 트레이드를 추진했다"며 "그동안 KBO리그 및 국제대회에서 필승조로 활약한 만큼 향후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홍철기자